

새마을운동 제창 33주년 축하 메시지

새마을운동 제창 33주년을 맞아 제16대 이수성 중앙회장이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해 왔습니다. '금모으기운동', '북한에 손수레 보내기 운동'과 같은 자발적 국민운동도 선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각 분야의 개혁과제도 시급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새마을운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와 참여정부가 먼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학력과 성별, 출신지역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경륜과 지도력을 함께 갖추신 이수성 회장께서 취임하신 만큼 새마을운동에 거는 기대도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개혁과 통합의 구심점으

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